

## 버마 투자 석유회사에 대한 회계 공개 요청서

석유회사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국영 태국 석유공사)들은 버마 당국에 대한 그들의 지출을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미얀마에 있는 석유 추출 지역에서 그들의 회사 투명도와 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서명에 함께하고 있는 NGO들과 노조, 투자 회사,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은 석유회사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사가 1992년부터 미얀마 정부에 사업수익의 대가로 지불해 온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 하며 여기에는 세금, 요금, 로얄티 대금, 보너스, 사회보장료 등이 모두 포함된다.

1992년 Total사는 MOGE(미얀마 석유공사)와 버마 안다만 해에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시장 및 개발, 탐사에 대한 생산물 공유 계약을 체결하였다. Total사는 현재 미얀마 석유-천연가스 자원을 태국까지 운송하는 파이프라인-Yadana-을 관리하는 Chevron과 PTTEP과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야다나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버마에서 관련시설이 건설되었으며 2000년도부터 판매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운반된 천연가스는 태국 국경 두 곳에 위치한 발전소로 공급되어 방콕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단일규모로는 버마 군사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

2009년 10월, Total사는 버마 Yadana 천연 가스 프로젝트에 있어서 버마 당국이 받는 이익이 미화로 2억 5400만불에 달한다고 공개하였다.

우리는 토탈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을 딛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기회에 Total S.A를 비롯, Chevron, PTTEP가 1992년 이후의 모든 이익을 근 시일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얀마 당국에 지불한 모든 내역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토탈사가 야다나 파이프라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회-경제 지원 프로젝트에 소요된 금액도 공개하기를 원하며 여기에 지출한 돈의 흐름과 규모 및 출처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가 1992년 이후 미얀마당국에게 지불한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한다면, 버마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 만 아니라, 이 회사들이 버마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건설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회사들의 주식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뿐 아니라 해당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각 국가들도 가스개발로 벌어들인 이익을 버마 당국이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 공범으로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버마에서 새롭게 채굴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건설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미얀마에서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의 재량에 달려있다. 토탈이 미얀마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은 미얀마 국민과 토탈의 파트너였던 유노칼과의 미국 법원에서의 인권침해 소송과정에서 공개되었다. 이 회사들이 미얀마 정부에 지불한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에서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토탈사가 2009년에 미얀마 정부에 지불한 총액수만을 공개한 것처럼 다른 회사들도 재량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더욱이 토탈사는 공개적으로 “엄격한 투명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부국인 나라에서 자원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며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허약한 해당 국가의 정부 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분쟁을 키우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1

더욱이 Total과 Chevron은 각각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정부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채굴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요소이자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안정성과 훌륭한 거버넌스를 증진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에 공헌한다. 외국기업이 해당 국가에 지불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해당국가가 자원개발 이익을 활용하는데 있어 책임성을 증진하고 해당 국가 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몫을 증가시킬 수 있다.

버마는 상대적으로 국가 수입의 상당부분을 가스 판매로 벌어들이고 있고 것을 포함하여 채굴산업에 있어 이익의 투명성이 이뤄져야 할 핵심적인 여러 이유들이 특히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버마에서 좋은 거버넌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부패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다나 가스프로젝트의 투자초기에 Total과 Chevron, PTTEP를 위해서 버마 군사정권에 의해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잘 보고 받지 못했을 것이라 믿고 있다.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는 버마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요소인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

This statement will remain open to endorsements until the Yadana companies practice revenue transparency. To endorse this statement email [transparency@earthrights.org](mailto:transparency@earthrights.org).